

철학의 중심문제해결을 통하여 본 중세 우리 나라 유물론철학의 발전(3)

박 문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세기에 유물론과 변증법적사상이 고대의 소박한 유물변증법적사상보다 더 발전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242페이지)

조선봉건왕조시기 철학의 중심문제는 리기호상관계문제였다.

조선봉건왕조성립초기인 15—16세기 진보적인 철학자들은 당시 철학의 중심문제로 나섰던 리기호상관계문제해결에서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견해를 제기함으로써 성리학적인관념론을 리론적으로 비판하고 기일원론적인 철학사상을 체계화하였다.

이 시기 기일원론적철학사상의 대표자는 김시습과 서경덕이였다.

김시습과 서경덕은 리를 기와 분리된 독립적실체, 주재자적존재로 보는 성리학적인관념론자들의 견해를 원리적으로 비판하였다.

김시습은 리를 사물현상의 리치, 조리로 보면서 리는 기와 떨어져있을수 없고 기(사물)가운데 있으며 철저히 기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그는 《하늘이 음양5행의 만물을 만들 때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리도 동시에 주었다. 이른바 리라는것은 일용사물에 있어서 모든것에 일정한 조리(합법칙성 또는 리치—필자)가 있는것을 말한다.

리를 연구하여 성(성질, 본성)대로 실천한다는것은 곧 생활의 법칙을 밝혀낸다는것이며 사물에 립하여 진리에 도달한다는것도 곧 이 사물의 법칙을 알아낸다는것이다.》(《매월당집》 남염부주지)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김시습은 리가 기보다 앞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리기는 선후차가 없는 동시적인 존재이며 리는 기에 의존되어있다는것을 명백히 하고있다.

서경덕도 리와 기는 선후차성관계를 론할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보았다. 즉 그는 성리학자들이 리기호상관계문제를 선후차성에 관한 문제로 보면서 《리선기후》의 립장에서 론하는것을 반대하였다.

그에 의하면 리는 기운동의 법칙, 성질, 원리이기때문에 리가 기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수 없고 밖으로부터 와서 기를 주재하는것이 아니라 기자체에 내재하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기박에 리가 없고 리는 기의 주재이다. 이른바 주재라고 하는것은 밖으로부터 와서 주재하는것이 아니라 기의 작용이 바른것을 잃지 않는 까닭을 가리켜서 주재라고 한다.》(《화담집》 권2 잡저 리기설), 《그 까닭(리치, 법칙)을 말하여 리라고 한다.》(《화담집》 권2 잡저 원리기)라고 하였다.

서경덕은 리가 기운동의 법칙, 합법칙성이기때문에 리가 기보다 앞서 존재할수 없다고 하면서 《리가 기보다 앞서는것이 아닌바 기에 시초가 없으면 리도 시초가 없다. 만일 리가 기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이는 기에 시초가 있는것으로 된다.》(우와 같은 책 리기설)라고 하였다.

리기호상관계문제에 대한 기일원론자들의 유물론적견해는 세계의 시원과 관련되는 철학의 기본범주였던 《태극》과 《태허》에 대한 해석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였다.

《태극》과 《태허》는 동방철학에서 세계의 시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리해에서 유물론적견해와 관념론적견해가 명백하게 대립되였다. 이 시기 성리학적인관념론자들은 《천지만물의 리를 합한것이 태극이다.》(《주자어류》 권94)라고 한 주자의 견해를 모방하여

《태극은 곧 리이다.》(《퇴계집》 권2 서 정자중별지)라고 하면서 《태극》을 영원불멸한 리와 완전무결한 도덕적본성(도)을 갖춘 신비적인것으로 보았다. 지어 그들은 자연세계와 인간사회의 계급신분관계, 등급질서가 이 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것이라고 설교하였다.

김시습은 태극에 대한 주자성리학자들의 견해를 반대하고 기일원론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태극은 곧 음양의 기로서 태극과 음양의 기는 불가분리의 통일속에 있다고 보면서 음양밖의 태극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그는 《태극은 음양이며 음양은 태극이다. 음양밖에 따로 태극이 있다면 음양으로 될수 없고 태극안에 따로 음양이 있다면 태극이라고 할수 없다.》(《매월당집》 권5 설 태극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태극》을 관념적실체인 리로 보는것이 아니라 음양의 기로 봄으로써 기에 의한 세계의 물질적통일성을 인정하려는 김시습의 기일원론적립장이 반영되어있다.

김시습은 리와 기를 하나의 통일체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사물의 운동변화의 법칙성을 태극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태극 또는 리가 추상적이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가분리의 통일을 이루고있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해와 달이 바뀌어 낮과 밤을 이룬다. 하늘이 어찌 말하겠는가. 4계절이 가고 만물이 발생하는것은 오직 태극의 작용이다. 태극의 도는 음양일뿐이다.》(우와 같은 책)라고 하였다. 그는 태극, 리가 사물의 운동변화의 법칙성으로서 사물자체에 내재하는것이며 그 법칙성은 음기와 양기의 작용에서 나타난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리가 기에 앞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며 리는 사물의 법칙성, 기자체의 운동변화의 법칙성이라고 보는 유물론적견해이다.

서경덕은 《태허》에 대한 리해에서 기일원론적립장을 견지하였다.

서경덕은 《태허설》을 비롯한 많은 글들에서 《태허즉기》에 관한 사상을 제기하고 이를 통하여 물질세계의 공간적인 무한성과 시간적인 영원성, 기불멸에 관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서경덕은 《태허》라는 개념을 두가지 뜻으로 리해하였다. 즉 천지만물이 발생하기 이전 기의 원래상태(선천)와 천지만물이 형성된 다음 기로 가득찬 무한한 공간(후천)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맑고 형체가 없는 태허를 선천이라고 하고 일기가 갈라져 천지, 일월, 별이 되고 물과 불이 되는것을 후천이라고 한다.》(《화담집》 권2 잡저 원리기)라고 하였으며 《지구가 태허가운데 매달려있고 기가 맑은 태허가운데서 모이고 흩어진다》라고 하였다.(《화담집》 권2 잡저 원리기 귀신사생론)

서경덕은 선천세계와 후천세계의 우주공간은 다 기로 가득차있는 물질세계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태허가 허하면서 허하지 않는것은 허가 곧 기》이며 《허하다고 하면서 기라고 하는것은 허하고 고요한것이 기의 본체》이기때문이라고 하였다.(《화담집》 권2 잡저 태허설)

서경덕은 이러한 《태허즉기》가 공간적으로 무한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밖이 없는것을 태허라고 한다.》(《화담집》 권2 잡저 리기설), 태허를 선천이라고 하니 《선천은 크기에 있어서 끝이 없다.》(《화담집》 권2 잡저 원리기)라고 하였으며 기가 넓은 공간에 가득차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서경덕이 우리 나라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물질세계의 공간적인 무한성문제를 제기하고 유물론적으로 해결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서경덕은 기로 이루어진 물질세계의 공간적인 무한성뿐아니라 시간적인 영원성에 대하여서도 해석하면서 기불멸론, 물질불멸에 관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는 《허가 본래 영원하니 기도 또한 영원하다.》(《화담집》 권2 잡저 리기설), 《허가 본래 영원하고 끝이 없으

니 기도 또한 영원하고 끝이 없다.》(《화담집》 권2 잡저 원리기)라고 하였다. 서경덕은 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천지만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멸하지만 천지만물을 이룬 기 자체는 모이고 흩어지는것은 있어도 발생하고 소멸하는것은 없으니 이것은 기의 본체가 그러한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다양한 천지만물은 일기가 모여서 이루어지는것인데 천지만물이 소멸되어도 그 천지만물을 이룬 기는 흩어져서 태허가운데로 돌아가 공간의 기로 될뿐이며 기 자체는 소멸되지도 않고 증가하거나 감소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그는 《기는 시초가 없고 발생한적도 없다. 이미 시초가 없는데 어찌 종말이 있으며 발생한적이 없는데 어찌 소멸이 있겠는가.》(《화담집》 권2 잡저 태허설)라고 하였으며 《모이고 흩어지는것은 있어도 생기거나 없어지는것이 없는것은 기의 본체가 그러한것이다. 기의 한결같이 잠잠하고 맑고 허한것이 끝없이 넓은 공간에서 크게 모인것은 천지가 되고 작게 모인것은 만물이 되니 모이고 흩어지는 형세가 미미하고 현저하고 오래고 빠를뿐이다. 태허가운데서 모이고 흩어지는것이 크고 작은것은 그 나뉠으로 다를뿐이다. …비록 한조각의 초불의 기라 할지라도 눈앞에서는 흩어지는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남은 기만은 마침내 흩어지지 않으니 어찌 무로 돌아간다고 말할수 있겠는가.》(《화담집》 권2 잡저 귀신사생론)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천지만물은 끊임없이 발생소멸되지만 천지만물을 이룬 기 자체는 영원불멸하다고 하는 기불멸론, 물질불멸에 관한 사상이 소박하게 제기되어있다.

리기호상관계문제에 대한 기일원론적견해는 기의 물질적성격을 이론적으로 밝힌데서도 표현되었다.

기의 물질적성격에 관한 문제는 리기호상관계문제를 해결하는데서나 우리 나라와 동방의 중세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라고 볼수 있다.

서경덕은 세계의 시원, 본질로 되는 기를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하여 느낄수 있는 감각적인 속성을 가지고있지 않는 미세한 물질적실체로 이해하였다. 그는 《기를 움키자면 비어있고 잡자면 없다. 그러나 오히려 실재하여 없다고 말할수 없다. 이 경지에 이르면 들을 소리도 없고 말을 냄새도 없다.》(《화담집》 권2 잡저 원리기)라고 하면서 기는 형체와 소리, 냄새, 맛, 색이 없기때문에 맑고 잠잠하여 볼수도 없고 들을수도, 냄새를 맡을수도 없고 맛을 볼수도 없으며 손으로 잡을래야 잡을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는 없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재하며 기의 본체자체가 그러한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기를 부채질을 할 때 바람이 형체가 없으나 피부에 감각되는것과 같이 실재하는것이며 먼지와 같은 미세한 립자이라고 추측하였다.

서경덕은 이와 관련하여 《…부채를 약간 흔들기만 하여도 곧 바람이 일어난다. 바람은 기이니 천지에 꼭 찬 기가 마치 계곡에 물이 가득찬것처럼 빈틈이 없다. 바람이 자고 공기가 맑을 때에는 다만 모이거나 흩어지는 형적을 보지 못할뿐이지 기가 공간에서 떠날적이 있겠는가? …부채를 약간 흔들어서 마찰이 되기만 하면 기가 매번 흔들리어 바람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시에서 〈형체가 마찰되어 기가 움직이면 바람을 일으킨다.〉고 쓴것이다.》(《화담집》 권1 시 사김안국혜선이수)라고 하였다.

서경덕은 세계의 시원으로 되는 기와 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천지만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세계의 시원으로 되는 기는 형체와 소리, 색, 맛, 냄새와 같은 감각적 속성이나 질적특성을 가지지 않으나 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천지만물, 구체적인 사물은 형체와 함께 소리, 색, 맛, 냄새와 같이 사람의 감각기관에 의하여 느낄수 있는 질적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서경덕의 이와 같은 견해는 물질에 대한 철학적리해와 자연과학적리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근본적인 제한성을 나타내고있으나 세계의 시원으로 되는 물질과 구체적인 사물을 구분해보려는 합리적인 시도라고 볼수 있다.

리기호상관계문제에 대한 기일원론자들의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견해는 기로 이루어진 자연세계의 운동변화와 기운동의 원인과 동력에 대한 리해에서도 표현되었다.

15-16세기 우리 나라 철학에서는 천지만물의 운동변화가 초자연적이며 정신적실체인 리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성리학적견해가 지배하고있었다.

서경덕은 이러한 성리학적견해를 부정하고 물질운동의 원인과 동력이 사물자체에 있다고 보면서 그것을 대립물의 호상작용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홀쩍 뛰며 문득 열리니 누가 시키는가. 자기스스로 능히 그러한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으니 이를 리지시라고 한다. 운동과 정지, 닫기는것과 열리는것이 없을수 없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것이다.》(《화담집》권2 잡저 원리기)라고 하였다.

그는 13세기초 리규보에 의하여 제기된 원기의 《자생자화》에 관한 사상을 계승하여 기로 이루어진 사물의 운동이 자기스스로의 운동이며 자기 능력에 의한 운동이라는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로부터 《자능이》라는 개념을 썼다. 뿐만아니라 사물의 운동변화의 원인을 사물자체안의 대립되는 두 요소의 호상작용으로 리해하였고 대립물의 호상작용이 스스로 그러한것이라는 의미에서 《기자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서경덕은 기를 서로 의존하고 제약하는 관계에 있는 대립물의 통일체로 보았다.

통일체의 량분과 량분된 대립물의 호상작용에 의한 사물의 운동, 사물의 운동과정에 상반되는 대립물의 호상전화에 관한 서경덕의 견해는 당시로서는 사물의 운동과 그 법칙을 높은 경지에서 논의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와 같이 15-16세기 우리 나라 철학에서는 리기호상관계문제가 철학의 중심문제로 제기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 유물론적견해와 관념론적견해가 심각하게 대립되었으며 이 과정에 기일원론적철학사상가들에 의하여 유물론적세계관이 한 단계 발전하였다.